“스님의 어진 그림자, 창건 도량서 빛날 것”

봉안당 효경 대종사 영결식
8월 14일 법안정사서 봉행
원로 스님 대거 참석 ‘추모’
횡성 대각정사서 다비 엄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4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조계종 대각회장으로 봉행된 ‘봉안당 효경 대종사 영결식’ 후 대종사의 법구를 횡성 대각정사로 이운하기 위한 의식을 설행하고 있다.

“봉안당 효경 대종사님! 서방정토에는 잠시 계시다가 속히 돌아오소서. 멋진 미래세상이 스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첫 대형 도심사찰인 법안정사를 창건하고 지역 포교를 선도했던 봉안당 효경 대종사가 무위적멸의 세계로 나아갔다.

조계종 대각회 봉안당 효경 대종사 장의위원회(위원장 장산 스님)는 8월 14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봉안당 효경 대종사 영결식’을 재단법인 조계종 대각회장으로 엄수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수봉 세민·송원 설명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무심 보광 대종사,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효경 스님을 추모했다.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효경 스님과의 인연을 술회하며 “‘우린 아픈 세상에 살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 유마힐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했다. 이것이 큰 스님이 ‘아픈 세상’이라 하신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정사 사부대중과 대각회 임원 스님 등은 영결을 마치고 다비까지 끝나며 스스로 다 흩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찌 스님의 뜻과 정신까지 흩어지겠는가. 아마도 이곳(법안정사) 도량과 횡성의 대각정사에서 늘 스님의 어진 그림자가 더욱 빛낼 것”이라고 추모했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영결법어에서 “효경 스님은 해인사에서 일대시교를 마치고 수행정진을 멈추지 않으셨으며 이사에 두루 통달하신 이 시대의 스승”이라며 “오직 불사와 포교에 일생을 몸바쳐 오신 스님의 행적은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큰 공덕”이라고 상찬했다.

이어 ‘위산 스님의 수고우(水牯牛)’ 화두를 제시하며 “스님께서는 문을 나서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시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차 한잔하고 가소서”라고 설했다.

불영 자광 대종사는 조사를 통해 “스님께서 지금까지 닦아놓은 불사는 뒤에 오는 후학들의 평탄한 길이 되고 귀의처가 될 것”이라며 “불국정토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속환사바하시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스님과 평소 인연이 각별했던 인사들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대각회 이사 서해 흥교 스님은 효명 스님과 인연들을 술회하면서 “준비된 원고가 있지만, 특별하게 할 말은 없다. 스님이 벌써 그립다”고 추모했다.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는 “스님의 가르침은 단지 말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삶 자체가 곧 하나의 법문이었다”면서 “스님의 자비심과 원력은 모든 불자들에게 횃불이 되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서원했다.

영결식 후에는 다비식이 엄수되는 횡성 대각정사로 법구가 이운됐다. 효경 스님의 법구는 스님이 창건한 목동 법안정사를 나와 운구 차량으로 옮겨졌다. 영결식장에 모인 사부대중은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다비식은 횡성 대각정사에서 여법하게 엄수됐다.

한편, 효경 스님의 초재는 8월 16일 오전 10시 법안정사에서 봉행됐으며, 2재부터 5재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법안정사에서, 6재는 9월 20일 오전 10시 종로 대각사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7재는 9월 27일 오전 10시 법안정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AI 김순덕 할머니의 소원 “일본 사죄”

나눔의집, 9일 기림문화제
AI로 김순덕 할머니 복원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나눔의집(대표 세영 스님)이 9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서 기념식과 기림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기림의날은 1991년 고 김학순(1924 ~1997)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고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제막식, 문화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고 김순덕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휴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할머니들의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이뤄드리도록 노력하면 좋을까요”라고 묻자 김순덕 할머니의 AI 디지털휴먼은 “글쎄,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향에 묻히고 싶지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답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날 나눔의집 대표 세영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가는 자리”라면서 “나눔의집은 앞으로도 피해자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어르신들, 본명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많은 피해자분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하고자 한다”면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5월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이다.

임은호 기자

“조세이 탄광 유해수습 적기…한일 정상 나서달라”

日새기는회, 12일 낙산묘각사서 기자회견
지난 6월 본갱도 입구 찾아
“한일 정부 관심을” 요청

“이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유해 발굴 지원을 지시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 한국 강제징용자 유해 수습의 적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은 8월 12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이 탄광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의 위령과 아픈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1991년 일본에서 결성된 단체가 새기는회이다. 이들은 1991년부터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유족회와 일본 새기는회의 활동으로 2013년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비가 건립됐다. 이노우에 요코 새기는회 회장은 “위령비 건립 후 한국 유족회 분들이 ‘위령비 건립으로 운동이 끝나서는 안된다. 유해를 송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후 모임의 운동 방향성을 유해발굴 및 송환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이 탄광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전적으로 민간 단체인 새기는회의 역량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5000만엔의 기금을 마련해 5회에 걸친 잠수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본갱도 입구를 찾았으며, 피아(배기구)에서 옛 갱도, 본 갱도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인했다.

우에다 게이지 사무국장은 “모금했던 기금들이 8월 25~27일 한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나면 거의 고갈된다”면서 “일본 정부에 3000만엔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유해수습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유해수습을 위해 한국사회의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국 후원 계좌: 1006-501-377562 우리은행(관음종)

문의 010-4234-5851

신중일 기자

韓日불교협, 첫 청소년교류대회 성료

8월 4~7일 日서…12명 참가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이하 한일불교)가 8월 4~7일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제1차 한일불교 청소년교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한일불교 회장단(조계종·천태종·진각종·관음종·태고종·총지종)이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종단에서 추천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9명 등 청소년 12명이 참가했다.

한일 양국 불교계는 2014년부터 청소년 교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행사를 계획했지만 정치적 경색과 코로나19로 연기되다 올해 처음 열게 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3박 4일간 일본 대표 종단인 일련종·임제종·진언종 사찰을 방문해 일본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일련종 대본산 이케가미혼몬지에서 선조와 전쟁·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 연고가 없는 이들을 추모하는 미타마 마츠리 법회에 동참했으며, 임제종 본산 켄쵸지에서 2시간 동안 좌선 체험을 했다. 카와사키 소재 진언종 대본산 헤켄지에서 호마법회를 참관하는 등 일본 각 종단의 특색있는 전통 법회와 수행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일불교 측은 “앞으로 대회 취지에 걸맞게 양국 불교계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